

發 刊 辭

이번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4호는 지난 2004년 10월 30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와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이 공동으로 “법의 지배 확립을 위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던 학술회의의 발표문을 특집으로 엮었습니다. 이 학술회의는 사법개혁작업의 일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관한 그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핍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발전적인 일조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제1부는 법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법률가상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또 그러한 법률가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법률가들은 어떠한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바람직한 법률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로운 법의식과 균형감각, 봉사정신과 식견을 갖춘 문화인, 교양인으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진정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부는 바람직한 법률가상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법시험을 살펴봄으로써 비교의 차원에서 배울 점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바람직한 법률가 양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사법시험이라는 수단을 구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또 역으로 사법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법률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바람직한 법률가의 배출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좀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색과 천착이 필요하겠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일본의 사법시험만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핵심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통하여 앞으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주최측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최 병 조 識